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여부 오늘 결정

약관들어 지급 거부 vs 금감원 압박에 꼬리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한화생명

삼성생명 사실상 거부에 이목집중

한화생명, 약관 법률자문 의뢰도

금감원-생보사 대립 확대 전망

한화생명이 오는 10일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먼저 '총대'를 맨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방침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화생명의 결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보다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약관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일괄지급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10일까지 분쟁조정위원회의 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한화생명은 법률법인에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상품의 약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권고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한 법리검토 등이 이뤄지면서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받았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과 같은 건으로 분조위에 올랐다. 지난 5월 20일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에서 분조위는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라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2만5000건, 850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망은 반반이다.

우선 한화생명의 약관이 삼성생명보다 구체적인 점에서 한화생명도 금감원 권고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당초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문제로 삼은 것은 약관인데. 한화생명은 약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명시했다.

한화생명의 약관을 보면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에 따라 지급한다'로 명시돼 있다. 삼성생명의 약관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한다'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적을 지지 않기 위해 삼성생명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점은 한화생명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삼성생명이 먼저 '총대'를 매고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했지만, 당국 안팎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방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종합감사까지 고려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급금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급 선택 가능성을 높인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4300억원인 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다.

만약 한화생명이 삼성생명처럼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할 경우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 구도가 금감원과 생보사 전반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대로 생보업계 2위인 한화생명이 지급 결정을 내리면 교보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아 일괄지급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교보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700억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결정에 따라 즉시연금 사태가 금융당국과 싸움으로 확대될지, 일괄지급으로 일단락될지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hj89@metroseoul.co.kr

"실손보험 '무료시술' 일단 의심부터"

금융꿀팁 200선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질병을 조작하는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분명한 보험사기다.

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진료를 권유받을 경우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고,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라고 9일 조언했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보장대상이 아닌 피부관리, 미용시술을 권유해 시행하고,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편의를 봐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질병, 상해의 내용을 조작·확대하는 행위에 가담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 스스로를 보험사기자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병원은 돈벌이 수단으로 환자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실제 진료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확인서나 진단서 등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점이라도 의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자체가 명백한 문서 위·변조, 사기 등 범죄 행위다.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특성상 의사, 간호사, 환자, 보험설계사 등 다수가 연루되어 있어 당장은 넘어가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될 수 밖에 없다.

입원환자 대부분이 병실에 없거나 기록관리 없이 외출이 자유로운 병원, 진료기록을 실손 보장항목으로 조작하는 병원, 수익 목적의 사무장 병원 등 의심스러운 곳은 가능한 이용하지 않는게 안전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3가지 대처요령

1 불필요하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시술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세요.

2 진료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는 요구하지도 받지도 마세요.

3 의심스러운 병원은 이용을 피하고 수상한 점은 신고하세요.

〈점검대상 P2P 연계대부업자의 업무 유형별 대출현황〉

구분	개인신용	법인신용	PF	부동산 담보	기타	전체
누적대출액	2,353.0 (10.4%)	1,272.8 (5.6%)	8,729.4 (38.4%)	8,398.4 (23.8%)	4,965.1 (21.8%)	22.718.7
대출 잔액	1,161.0 (11.6%)	506.7 (5.1%)	4,316.1 (43.2%)	2,270.5 (22.8%)	1,722.1 (17.3%)	9,976.4

P2P 첫 자율규제… PF자산 비중 30% 제한

공유경제 위한 디지털금융협 준비委

4가지 규제안 세부조항 이달 마무리

개인간(P2P)금융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부담이 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새 P2P금융협회 설립을 준비 중인 '공유경제를 위한 디지털금융협회 준비위원회(가칭 · 이하 준비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내놨다.

이번 규제안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인 2010년의 저축은행 대출자산 취급비율보다 현재 P2P금융 산업의 부동산PF 대출자산 취급 비율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됐다.

준비위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P2P 부동산PF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규제안부터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지난 2개월간 국내 금융권의 다양한 감독 규정과 법률 학습,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안을 마련코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안(자산건전성 규제)은 준비위 발족 시 내건 4가지 자율규제 중 최우선 조항이며 나머지 자율규제안에 대한 세부조항도 8월 내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준비위 위원장을 맡은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업계의 여러 회사가 자율규제안에 동참해 업권의 자정작용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위는 기존 한국P2P금융협회를 탈퇴한 렌딧, 8퍼센트, 팝펀딩 등 3개사를 주축으로 지난 5월 발족됐다. 본 협회 회원사들은 논의를 통해 P2P금융회사 기준을 정립, 법제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2019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국민은행 연금저축펀드 계좌 '카페라떼' 이벤트

KB국민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KB라떼 연금저축펀드계좌 더블샷'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9월 28일까지 KB라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카페라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운용상품으로 TDF(타겟 데이트 펀드) 상품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 외식상품권 등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작년 8월에 출시된 KB라떼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인터넷과 KB스타뱅킹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 상품이다.

소액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 '카페라떼 효과'를 기반으로 설계된 대표적 짠테크족 맞춤형 상품으로 출시 이후 젊은 직장인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소액을 쉽게 입금하는 '아이콘 입금', KB카드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저축하는 'KB카드 연계 자동적립 서비스' 등 젊은 세대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TDF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고객의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 조절하는 상품으로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한 연금자산 운용에 가장 적합하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ATM 카드신청 서비스

신한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ATM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ATM 간편 카드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ATM 간편 카드신청 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365일 운영되는 ATM을 통해 고객이 편리하게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신속한 신청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신한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은 ATM 화면상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신청되며, 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은 휴대폰 번호 입력 후 모바일 웹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이 완료된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ATM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회비 전액(최대 3만원)을 마이 신한 포인트로 적립해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예보 사장에 위성백 전 기획부 국장 유력

예금보험공사의 차기사장으로 위성백(58·사진)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류 접수가 마감된 예금보험공사 차기사장 공모에 위 전 국장이 지원했다.위 전 국장이 사장으로 확정되면 곽범국 현 사장에 이어 연달아 기재부 국고국장 출신이 예보 사장이 된다.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위 전 국장과 다른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추위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새 사장 후보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새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유리 기자